

제18차 ARCASIA 포럼 및 제36차 ARCASIA 이사회 참가 보고서

Report : The 18th Arcasia Forum & 36th Arcasia Council Meeting

글. 오동희_ Oh, Dong-hee · 건축사 /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1. 참가 개요

대한건축사협회는 2015년 11월 10일(화)부터 17일(화)까지 태국의 옛 수도인 아유타야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카시아포럼 및 제36차 아카시아이사회 참석하였다. 주요행사로 이사회 및 임원회의, 건축교육위원회, 건축실무위원회, 친환경위원회, 사회책임위원회, 젊은건축사위원회, 그리고 아카시아포럼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표단은 오동희 국제위원장, 김성민 국제위원을 공식대표로 심재호 아카시아부회장, 신춘규 아카시아실무위원장, 조인숙 UIA WP 위원장, 유승렬, 이승석 국제위원, 이기완 녹색건축위원장, 김시원 청년위원장, 심혜진 국제협력팀장이 참가하였다. 11월 11일 첫날 임원회의, 위원회 회의, 각테일 리셉션으로 시작되어 아카시아 이사회, Professional Workshop, Technical Workshop, Design Analysis Forum, 사회책임 심포지엄, Design Research Lecture, 우정의 밤을 끝으로 이번 국제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2. 행사 배경 및 주제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CAA에서 최초 논의가 되어 1970년에 6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으로 창설된 후 지금은 1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회원단체는 한국(KIRA), 일본(JIA), 중국(ASC), 몽골(UMA), 홍콩(HKIA), 마카오(AAM), 싱가포르(SIA), 태국(ASA), 말레이시아(PAM), 필리핀(UAP), 라오스(ALACE), 베트남(VAA), 인도(IIA), 파키스탄(IAP), 방글라데시(IAB), 스리랑카(SLIA), 인도네시아(IAI), 네팔(SONA), 부탄(BIA) 등 총 19개국이다. 제18차 아카시아포럼과 제36차 이사회(Council meeting)는 태국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아유타야 클래식카메오호텔 컨벤션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임원회의 및 위원회 회의, 11월 12일~13일 제36차 이사회 및 전문가 워크숍, 기술워크숍, 11월 14일~15일 제18차 아카시아포럼을 통해 디자인포럼, 사회적임 건축심포지엄, 디자인리서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고, 11월 16일 아유타야의 고대 유적지인 Lopburi지역 탐방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번 제18차 아카시아포럼은 “Future of the Past”라는 주제 아래에 과거의 흔적, 문화적인 전통, 양식적인 형태 등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투영된 가치를 찾아내고 이것을 미래 지속 가능한 가치로 재창조해 나가기 위한 미래 유산으로서의 건축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19개국의 회원단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적 행위, 사례, 이론적인 제안에 대한 강연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3. 제36차 아카시아이사회 및 위원회

아카시아이사회 회의는 임원회의, 건축실무위원회(ACPP), 건축교육위원회(ACAE), 친환경건축위원회(ACGSA), 사회책임위원회(ACSR)와 펠로우십 위원회, 그리고 2015년에 첫 회의를 갖는 젊은건축사위원회(ACYA)로 구성된다. 이사회 하루 전 위원회별 안건에 대해 각 회원국의 발표 및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임원회의에는 심재호 Zone-C부회장, 건축실무분과위원회에는 신춘규 아카시아실무위원장, 건축교육위원회는 조인숙 UIA WP Director, 친환경건축위원회는 이기완 본회 녹색건축위원장, 사회책임위원회는 김성민 위원 그리고 젊은건축사위원회는 김시원 본회 청년위원장이 참가하였다.

1) 건축교육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Architectural Education)

건축교육위원회는 마카오의 Nuno Soares위원장을 비롯해 17개국 대표(우리협회 조인숙)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안건은 첫째, ACAE에서 진행 중인 사업, 둘째, 아카시아에서 채택했던 결의안에 의해 추진 중인 사업, 셋째, 신규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전 9시 30분 개회선언에 이어 각국 대표단 소개, 전기 회의록 승인, 각국보고서 발표, 안건별 주제 발표 및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ACAE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Dr. Kunawong과 Dr. Abu에 의해 기획되어 이후 지속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Traveling Fellowship(건축여행 장학금), 교환교수 프로그램, 현상설계 매뉴얼, 버추얼 건축학교, 건축연구논문 저널(Architectural Research Journal) 발간, ARCASIA Timeline Chart 2nd Edition(ATC-2), Cross Border Internship(CBI),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학교) 디렉토리 제작, 학생상호교류 지원 및 링크 등이다. 특히 Traveling Fellowship(건축여행 장학금)은 회원국 내의 35세 이하 Young Architect를 대상으로 건축여행을 포함한 연구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회책임 주거, 역사보존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 ACAE는 버추얼 건축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창의성과 혁신, 기술과 친환경, 도시와 건축, 인간의 관계회복, 그래픽 기반의 의사소통을 개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술적인 검토와 정책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어 ARCASIA Pavilion Design Workshop의 명칭으로 가상공간 속의 건축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다수의 학생이 버추얼공간에서 워크숍에 참여하며 Research, Volumetric Studies, Concept Design, Detailed Design의 4단계로 진행된다. 마카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한국, 몽골 등이 Pilot Workshop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Cross Border Internship(CBI) 프로그램을 통해 아카시아 회원국 간 실무수련자들의 상호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ACAE는 회원국의 건축학 학생들의 설계논문에 대한 상호교류를 추진하며 그 사업의 명칭을 TOY ARCASIA라고 하고, 아

카시아 각국의 대학에서 졸업설계로 만들어지는 설계작품을 하나의 인터넷공간에 모아 교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아카시아에서 채택했던 결의안에 의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2014년 11월 이슬라마바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채택되어 시행 중인 설계스튜디오 교수 연수프로그램, 사회책임, 유니버설 디자인, 친환경 및 신기술을 포함하는 설계교육과정의 개정 추진이 있다. 셋째, 신규사업으로는 ACAE 웹사이트의 개정을 통해 기존 웹사이트를 간결하게 하고, ACAE 활동 보고체계를 보완하여 각각의 ACAE 활동에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 활동을 알려 공유되도록 하였다. 이외 아시아 건축학교육과정 학생교환교육(Students Exchange)을 위해 단계 별로 체계수립(Framework), 디지털 플랫폼 구축, 양식(Template), 참여기관 및 대학 리스트, 모의실험(Pilot Test), 결과보고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교수 연수 워크숍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매뉴얼을 구축하고 동계 워크숍을 2016년 2월 파키스탄에서, 하계 워크숍은 6월 마카오에서 개최 예정이다.

2) 건축실무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

건축실무위원회는 신춘규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19개국 회원국 중 마카오와 부탄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우리협회 신춘규)가 참석하였다. 직전위원장인 방글라데시의 이시 아티크 자히르의 위원회 역할에 대한 조언과 각국 대표단 소개로 시작되었다. 실무분과위원회의 주요의제로는 기존의 아카시아 실무데이터 수집, 아카시아 핸드북/매뉴얼에 대한 논의, 아카시아 실무계속교육(CPD), 아카시아 설계/감리 용역비 가이드라인 작성 등 4개의 의제와 직전위원장이 당일 제안한 UN Habitat를 추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아카시아 실무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현황 및 등록관련 내용 등 실무관련 주요 내용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그동안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해온 자료를 종합하여 아카시아 실무 핸드북과 매뉴얼을 만들기로 하였다. 조만간 실무 핸드북을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서 발간할 예정이다. 셋째, 아카시아 실무계속교육(CPD)은 지속적으로 각 회원국의 실무교육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회원국이 접근하기 쉽게 포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였다. 넷째, 아카시아 건축사 용역비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로 하였다. 다섯째, UN Habitat 보고서에 기초한 예측으로 2030년에 30여개가 넘는 대도시가 생기고, 그중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게 될 것이나, 아시아 지역의 건축사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우려하며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였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한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운드테이블 회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월 중순 방글라데시건축사대회(IAB) 개최 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함께 갖기로 하였다.

3) 친환경건축위원회

(ARCASIA Committee on Green & Sustainability Architecture)

방글라데시의 Qazi M Arif위원장 및 19개 회원국 중 마카오와 부탄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우리협회 이기완)가 참석하여 각국의 친환경건축과 관련된 정보와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아시아 각국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회의를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기완 녹색건축위원장과 유승렬 국제위원이 참석하였는데, 2014년 방글라데시 다카 및 2015년 인도 콜카타에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회의결과보고와, 17개국의 친환경건축 관련 Country Reports를 발표하였고, 한국은 이기완 녹색건축위원장이 한국의 녹색건축 정책/인증제도 및 건축사의 역할과 녹색건축대전 대상작을 발표하였다.

안전별 회의 내용은 첫째, 회원국 간 친환경인증 방법에 대한 논의, 둘째, 정기보고에 있어 잡지, 전시, 페이스북등 다양한 방법의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 셋째, 2016년 ACGSA의 활동계획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친환경 건축의 교류가 아직은 미약하며 향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분야에서의 창의적 도전과 기술적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위원회 차원에서의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였고 그 논의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하였다.

4) 사회책임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위원회는 최근 건축분야에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Rita Soh 위원장을 비롯해 16개국 대표(우리협회 김성민)가 참석하여, 아카시아 사회책임헌장 채택, 사회책임위원회 원탁회의 결의안 채택, 네팔의 공중화장실 프로젝트, 네팔 지진구호활동, 2015년도 각국의 사회책임 프로젝트 발표, 소위원회 구성 및 당면 과제가 논의되었다. 아카시아 사회책임 헌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각국 대표가 모두 서명하였

다. 2015년 8월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렸던 사회책임위원회 원탁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지속가능성, 지역사회를 중시한 교육 및 훈련, 재난복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팔의 공중화장실 프로젝트는 대지진 이후 개별프로젝트가 아닌 재난복구의 일부로서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네팔건축사협회장인 Kishore Thapa는 네팔 대지진후 카트만두에서 벌어진 구호활동, 재건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아카시아 회원단체의 후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장 많은 후원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어서 2015년도의 각국의 사회책임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각 나라의 특성에 따른 관련 사업, 행사 및 이슈를 발표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재능기부로 참여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계획내용과 SBS, 굿네이버스, KOICA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아프리카 희망학교 건립계획, 그리고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에 대하여 김성민 국제위원이 발표하였다. 향후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은 홍콩, 유니버설 디자인은 한국, 보존은 네팔, 공공 주거는 싱가포르 건축사협회의 대표가 간사로 선정되었다. 향후 사회책임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당면 과제를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외 건축대학의 교육, 현상설계, 아카시아 건축상,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고, 아카시아 건축대회 및 포럼의 내용 등에 사회책임에 관한 주제를 포함시키고, 아카시아 재난 건축사(AEA:ARCASIA Emergency Architects)를 발족하며, 자연재해에 관한 전문가 및 건축사 정보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복구에 대한 법규,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저서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5) 젊은건축사위원회(ACYA)

ACYA(젊은건축사위원회)는 16개의 회원국 대표(우리협회 김시원)가 참석하였다. Fawad Suhail Abbasi(IAP) 위원장의 개회 및 대표단 소개 후 의제토론을 통해 아시아 젊은 건축사에 대한 논의로 포커스를 맞추기로 하였다. 각 회원국 별로 젊은 건축사들의 활동상황을 발표하였으며, 우리협회는 한국의 젊은 건축사를 위한 정책 및 KIRA의 젊은 건축사 육성 활동, 청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김시원 청년위원장이 발표하였다. 논의된 주제는 아카시아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건축사들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여 아카시아가 젊은 건축사들을 위한 UMBRELLA 역할이 되도록 하고, 각국의 학교 커리큘럼 및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과정에 대하여 공유하고 아카시아의 젊은 건축사기준을 현행과 같이 만 40세 이하의 준공된 자기 작품이 있는 건축사로 하였다. 젊은 건축사 지원방안의 하나로 2016 홍콩 ACA(Asian Congress of Architects)부터 각 나라별로 젊은 건축사를 읍서버로 참여하게 하고 페차쿠차 등을 통하여 5팀 정도를 순위 없이 선발하는 Asia Young Designer's

Awards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협회에서도 2016 ACA에 학생 잼보리 참여에 따른 선발방안, 참가예산, 또한 추후 논의에 따라 젊은건축사위원회에 신진건축사가 참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6) 이사회(Council Meeting)

제36차이사회는 2015년 11월 12일~13일 회원국 19개국 중 18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제반 현안을 논의하였다. 우리협회에서는 오동희 국제위원장, 김성민 국제위원이 공식대표로, 그리고 회장단에 심재호 아카시아 Zone-C지역 부회장, 신춘규 아카시아 건축실무위원장이, 그리고 조인숙, 유승렬, 이기완 등이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첫째 날 오전 9시 대표단 단체사진 촬영 및 입장식이 개최되었는데, 태국 전통 민속무용단의 전통음악에 맞추어서 입장을 하였다. 아카시아 기(Flag)를 앞세우고 아카시아 회장단에 이어 참여국 대표단이 입장하였다. 아카시아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AIA 회장, 아카시아 전 회장, 아시아 재난대응센터(ADPC)의 참가, 그리고 아카시아 기업파트너의 참석을 알렸다.

주최국인 태국건축사협회의 Pichai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사의 준비내용 설명과 참가 환영을 하였고 AIA의 Elizabeth Chu회장도 축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인류의 행복, 지구의 미래, 그리고 사회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인류가 사회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 및 사회기반시설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건축의 지식기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계와 장벽을 물리쳐야 하는데 아카시아가 그 최적의 기반임을 확인하며 축하하였다. 대회 운영위원장인 Nitit 태국 건축사협회 부회장이 12일~13일 회의일정 안내, 그리고 일정 중의 만찬에 대한 설명하였다. 아울러 아카시아 포럼의 각 프로그램 및 호텔, 교통, 식사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아카시아-ADPC 간 MOU, 태국건축사협회와 미국건축사협회 간 MOU 서명식에 이어 네 팔지진에 대하여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아카시아 사회책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책임현장”을 채택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전 회원국이 서명에 동의하였다.

이사회 둘째 날 10시 30분에 재개된 회의에서 Sathirut Nui Tandanand 회장은 회의안건을 상정하고 순서에 따라 직전회의록 승인, 재무 보고, 회장 및 부회장 보고가 진행되었다. 회장은 현재 19개국 회원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아카시아에 캄보디아와 대만의 참가희망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미얀마, 브루나이, 몰디브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카시아는 우수한 디자인에 대한 건축상 운영, 건축실무위원회, 친환경건축위원회, 건축교육위원회를 운영하여 왔고, 2011년 사회책임위원회를, 2014년 젊

은건축사위원회를 시작하였다. 특히 건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책임포지움을 아카시아대회 및 포럼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athirut Nui Tandanand 회장의 활동보고에 따르면 회장은 이슬라마바드 제8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신입회장단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KIRA의 Zone-C 회의, 서울에서 개최된 AIA 뉴욕지부 순회전시회(Practical Utopia), 사회적 책임 및 교육에 대한 아카시아 라운드 테이블 회의,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Cross Border Student Training, Architecture Teacher Training, 젊은건축사위원회 운영 및 Arcasia Travel Prize 시행, 건축실무 워크숍, 건축기술워크숍, 아카시아 순회건축전시회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네팔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Help Nepal” 캠페인을 위해 네팔 방문 및 미국건축사대회에서의 논의, 네팔 지진피해 복구지원 이슬라마바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장단회의 개최, 일본건축가협회가 주최한 Arcasia Travel Prize에 참가하였다.

이어서 부회장 보고를 Zone-A 부회장/Zahangil Khan(IAP), Zone-B 부회장/Endy Subijono(IAI), Zone-C 부회장/심재호(KIRA)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방글라데시의 Urban Thinkers Forum, 부탄의 아카시아 회원국 활동 복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건축사팀 간 크리켓 시합 개최, 네팔의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의 잠재적 참여 유도,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지원, 재난에 대한 리스크 경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건축에 대한 활동이 보고되었다. 건축실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건축실무 핸드북, 유럽건축사협회(ACE)와 아세안 간의 MRA를 추진하여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인적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2014년 Zone-C 지역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지역 내의 공통적인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특히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아카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이사회에 참가한 18개국의 단체 대표가 차례로 국가별 활동보고 및 현안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7) 아시아건축사대회(ACA) & 포럼 평가 및 향후계획

2014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던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 보고서에 참가자에 대한 의미 있는 숫자가 확인되었다.

행사명	참가자
ACA 16 Conference	2,825 (230 non-local)
ACSR Symposium	220
Professional Practice Forum	80
Kuala Lumpur Design Forum	780
Green Building Forum	690

학생 잼보리는 같은 기간 동안 개최되었는데 15개 회원국, 총 366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주최국인 말레이시아가 약 50%인 170명이 참가하였고 방글라데시 58명, 파키스탄 50명, 인도네시아 32명, 네팔이 13명 참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권에 있는 중국 6명, 한국과 일본이 각각 2명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제17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2016년 홍콩에서 개최예정인데 이에 대해 홍콩건축사협회 회장의 일정 및 회의장소 등 준비상황이 보고되었고, 2018년 제18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일본 개최를 아시하라 회장이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2016년도 홍콩대회에서 표결을 통해 개최국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7년 제19차 아카시아포럼의 개최에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유치 보고가 있었으며 표결 결과 인도 10표, 방글라데시 8표를 얻어 인도가 차기 개최지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를 위해 심재호 공동조직위원장은 그 준비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아카시아 회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서울이 가진 자연적, 문화적 자산과 함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한국의 건축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의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대회를 약속하였다.

8) 차기 이사회 선거

2017년부터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의 선출을 위해 이사회는 각 회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건축교육위원장 Ar. John Joseph Fernandez (필리핀), 건축실무위원장 Ar. Thirilogachandaran (말레이시아), 친환경위원장 Ar. Debatosh Sahu (인도), 사회책임위원장 Ar. Bala Krishnan Pillai Sudhir (인도), 젊은건축사위원회 : Ar. Tan Szue Hann (싱가폴)을 선출하였다. 차기회장은 2017년도부터 2년간 아카시아를 이끌어 갈 예정인데 파키스탄의 Jahangir Khan 현 아카시아 Zone-A부회장, 인도의 Divya Kush, 스리랑카의 Jayantha Perera 3명이 출마하였다. 발표에 앞서 인도의 Divya Kush가 인도의 제19차 아카시아포럼 개최지 선정결과에 감사하고 회장출마를 사퇴하여 두 명의 후보에 대한 표결 결과 파키스탄의 Jahangir Khan이 13표를 얻어 5표에 그친 Jayantha를 이기고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Jahangir Khan은 ARCASIA의 중점추진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아카시아에서의 단결된 힘을 모아 건축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4. 제3회 사회책임위원회 심포지엄

11월 14일 개최된 아카시아 사회책임 심포지엄(우리협회 김성민)은 “저소득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less fortune)을 주제로 3명의 스피커가 발표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 Patama Roonrakwit는 태국, 영국에서 수학한 여성건축사로서 1997년에 CASE(Community Architect for Shelter and Environment)를 설립하고 도시 빈민층을 위한 인도적 접근으로 적정주거창조에 주목하였다. 그녀가 수행했던 중소규모 빈민촌의 개선프로젝트를 보여 주면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문제를 밀착하여 이해하고 수준에 맞게 해결하는 설계사례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Satoko Shinohara는 일본의 여성건축사로서 Special Design Studio 운영과 일본여자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중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용공간을 늘려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인도네시아의 Yuli Kusworo는 현재 커뮤니티 건축사 및 Arkomjogia의 건축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빈민촌에 사는 저소득층의 주도적인 개발모델과 문화유산, 재해 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난 이후의 복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효율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5. 제18차 아카시아포럼

11월 12일부터 개최된 제18차 아카시아포럼은 Future of the Past를 주제로 Professional Workshop, Technical Workshop, Design Analysis의 3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Professional Workshop에서는 “해외설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말레이시아의 Dr. Tan Luke Mun이 발표하였는데 그는 Kuala Lumpur Talor대학, Deakin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우루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Dr. Tan의 건축세계는 현대사회의 콘텍스트 속에서 지역성에 대한 고려와 재해석, 응용을 통하여 녹색건축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자인 Maythin Chan-Ou-Rai 태국 건축사는 영국 Huddersfield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2001년 영국의 Top 100학생에 선정되었다. 2005년도까지 영국 HLM사무소 디자인컨설턴트로, 그 이후 태국 설계사무소 Architects 49에서 아부다비,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건축사이다. 이날 강연에서 싱가포르 타운 하우스, 인도네시아 클럽하우스, 중국 소나무숲 호텔, 방콕 심포니 오케스트라 홀, 말레이시아 단독주택, 태국 주상복합 등 작품 소개를 했다. 또한 Sunantapat Chalermpanth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를 졸업한 후, 10여 년간 미국에서 실무를 하고 이후 태국에서 KTGYS설계 사무소를 세웠다.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태국,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몰디브 등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Technical Workshop에서는 첫째, BIM 소개(Autodesk Inc), 둘째, 혁신적인 건축용 철강재 (NS BlueScope), 셋째, 지속가능한 지붕 방수와 녹색 지붕 해결 방법 (SIKA)에 대하여 발표되었다.

Design Analysis Forum에서는 M.R. Chakrabort Chitrabongs의 기초연설에 이어 ‘현존하는 과거’, ‘실무 속에서의 과거’, ‘과거와의 관련성’ 강의가 발표되었다. ‘과거와 연결고리’라는 주제발표를 한 M.R. Chakrabort Chitrabongs는 Chulaongkrn 대학의 저명한 학자로 Naris, Damrong 왕자의 손자로 평생 동안 타이 전통문화의 대변인 역할을 해오면서 타이 문화에 관한 많은 저술 활동을 했다. 그는 타이 음악, 춤, 인형극 등을 타이 국내, 외에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는 “고대 타일랜드의 놀라운 창조성과 혁신”이라는 주제강의에서 고대 무덤을 통해서 드러난 크메르인들의 유희사상과 우주관, 그리고 아우타야 사원건축에서 반영된 타이 문화와 도시 및 건축원리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둘째 강의에서는 ‘현존하는 과거’라는 주제로 ‘수피 교육센터에서 공공장소’라는 제목으로 파키스탄의 Bhitshah 도시의 Shah Abdul Latif Bhitai 사원, ‘정체성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스리랑카의 독립 이후

의 종교 건축, ‘현대 이슬람 사원에서의 전통적인 지혜’ 라는 제목으로 방글라데시의 현대 이슬람 사원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셋째 강의에서는 ‘실무 속에서의 과거’ 라는 주제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음’라는 제목으로 파키스탄 Hyderabad의 현대 건축에서의 역사성에 관한 탐구, 산사태 디자인에 대비하는 말레이시아 전통건축, 마지막으로 중국 하르빈 대학의 Shiliang Lu 교수의 메모리얼 플라자 디자인과정에서 중국의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연계되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발표가 있었다. 태국의 기초연설과 스리랑카 외 6개국의 연구 발표를 통하여 과거의 역사문화가 현대 건축에 어떻게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강연이었다.



6. ACA17 환영 리셉션 및 아카시아포럼 Friendship Night

태국건축사협회가 주최한 공식 환영 리셉션 행사는 공식회의 장소인 클래식카메오 호텔 컨벤션룸에서 개최되었다. 약 250여명의 대표단이 리셉션 행사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번 아카시아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였다.

둘째 날 공식 만찬은 Baan Klong Sra Bua라고 하는 태국의 전통공연을 동반한 야외 만찬장에서 개최되었다. 수변에서 펼쳐지는 전통 무예 및 무용, 옛 이야기를 극화한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인상이 깊었다. 태국의 전통 음식을 나누며 아시아 각국에서 참가한 많은 친구들과 친교를 나누었다. 이날 하이라이트였던 연등 띄우기행사는 연등을 물위에 띄우

며 소원을 비는 것인데 아카시아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태국의 아유티야라고 하는 고도에서 개최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한 주최 측의 세심함이 잘 나타나는 행사였다.

셋째 날 만찬은 선상에서 개최되었다. 선상 만찬의 목적은 태국의 옛 수도였던 아유티야의 중요 고적을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식사와 함께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참가자로 하여금 태국의 귀한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과 함께 국가와 민족을 넘어 다함께 한가족이 되는 동질감을 주는 효과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를 통해 이해하게 된 태국의 문화와 역사에 깃들여 있는 세계관과 그 바탕에서 12세기 경 이룩된 아유티야라는 역사적인 장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의미가 있는 계획이다.

넷째 날 만찬은 Wat Chaiwattan aram이라고 하는 아유티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고대 사찰에서 거행되었다. 이 장소는 옛 태국민족의 정신이 그대로 표현된 장소인데 사후 내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Gantama Buddha 사상이 건축적으로 표현되어 천년의 세월을 지탱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평탄한데 그 한 가운데에는 수메루(신) 산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일곱 겹의 산과 바다가 이 산을 보호하며 그 밖으로 일곱 개의 큰 바다와 네 대륙이 있다는 사상이다. 아유티야는 이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라고 하며 특히 이날 행사장 바로 그곳은 위 사상을 그대로 형상화한 장소로서 방문자로 하여금 그 분위기에 흡수될 수 있도록 잘 연출된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이날 행사는 태국 문화부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멋진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도 아카시아 대회의 전통에 빛나는 우정의 밤은 다양한 볼거리와 많은 참가자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회의 주 행사장인 Classic Kameo Hotel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5 아카시아 우정의 밤에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 대표단이 각자 준비해 온 민속공연 및 노래, 춤 등을 보이며 아시아 건축사들의 화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린 훌륭한 시간을 꾸며주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태국 건축사회의 순서는 전통과 현대를 함께



어우르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였으며, 민속의상과 전통음악을 준비한 몽골, 베트남, 파키스탄의 순서는 매우 특색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2015 아카시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태국 건축사회는 대회 깃발을 2016년도를 준비하는 홍콩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대회에 우리는 스무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하였다. UIA서울대회를 홍보하는 흰색 셔츠를 모두 입고 “손에 손잡고”를 한 목소리로 부르는 우리 대표단의 순서는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참가단 모두가 아시아 건축사들의 모임에 동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7. 마치는 글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 또 지역적인 기반이 다양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아카시아의 19개국 회원단체의 건축사들은 이 대회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친밀한 동질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는 지구환경과 건축 전반에 대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주축으로 하는 서아시아의 활발한 활동과 지정학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주축으로 하는 남아시아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 일본을 비롯해 특히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선진국으로서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건축선진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축에 대한 가치 확립을 하고 이 바탕에서 아카시아의 많은 친구들과의 협력과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2017년 세계 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카시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건축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며 그 기초가 되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독려하여 우리 협회가 아시아, 또 세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